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살기

성경: 히브리서 11장 13-16절

Tag: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11:13-16)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보다는 저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기에 초점을 둔 종교이다.

물론 직접적인 깨우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계시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저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없다. ‘저 세상의 영광’에 대한 계시는 오직 ‘성경’ 책에만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계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 세계와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자체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야주 **기본적인 계시로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명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궁리를 다 짜내게 하는 마법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사람들은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고, 피조된 세계에 대한 계시는 마치 만유인력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화론과 줄다리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천지 창조에서 머물지 않았다. 천지 창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곳곳에 존재한다.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 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2:9)PPT 참고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2)PPT 참고

우리는 몇 달 전 이븐 알렉산더의 책 ‘나는 천국을 보았다’에서 천국에 갔다가 돌아온 의과대학 교수의 증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다.(찬양예배 시간에, PPT 참고)

내가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그 사람은 천국에 갔다고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된 천국에 갔다는 사람들의 증언과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의 모습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흡사 천주교가 주장하는 연옥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하였다.

연옥 교리가 맞네 틀리네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어차피 우리는 연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다만 교리를 이용해서 천주교가 면죄부 만행을 벌인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개신교에서는 연옥교리를 전면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면죄부 만행이 악한 것이지, 연옥교리가 악하거나 절대 믿어서는 안되고 믿으면 천국에 못가게 된다는 생각 또한 억지스럽다.

다만 굳이 믿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리로 채택하지 않을 뿐이다. (면죄부 만행이 가장 큰 원인)

아무튼, 핵심은 천국은 연옥처럼 -또는 이른 알렉산더가 소개한 천국처럼- 단순하지만은 않고,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곳이다.

설교의 핵심은 이것이다. 즉,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다. 영광스럽지 못한 연옥에 가려고 교회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서 지옥만 면하면 되는 것이 인생은 아니다. 부끄럽다는 것 또한 우리가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죄많은 교인이 될 것인가, 부끄러운 교인이 될 것인가? 죄가 많고 부끄러움도 많지만 회개하고 죄를 씻고 충성 봉사 하여 부끄러움을 벗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대충 살다가 천국까지는 못가고 연옥에 가서 부끄러운 교인이 될 것인가?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14:2)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14:3)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14:6) ppt 참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서 사는 것을 연습해야 천국에 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에서 사는 것을 연습하면 지옥에 간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고,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

하며 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고 애쓰는 자들을 도우시고, 천군천사를 보내 주시고, 날마다 계시하시고 위로하시고 돕는 자를 주신다.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도 복되고 저 천국에서도 영광스럽게 살게 된다.

본문 주해.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아벨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따라 죽었음;믿음의 도리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함.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이 세상에서 받기로 한 모든 복을 다 받지 못하였음;아브라함과 열국의 아버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하나로 만족해야 했으며,(다른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결코 언급하지 않음)

멀리서 보고 환영함;이 땅에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임을 믿음.

-또 땅에서는 나그네임을 증언함;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저 세상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14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  
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본향 찾는 자임을 증거하기 위함. 본향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

15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  
니와

-나온 바 본향;갈데아 우르를 말함. 이 세상의 고향. 고향으로 돌아가려고했더라면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을 사모했다.

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11:13-16)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 하늘에 있는 본향을 말함;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남. 사명을 가지고 태어남. 저주를 끊고 영생을 시작하라는 사명임.

-사명을 감당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심. 부끄러운 구원이 아님을 의미함.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들도 모두 이 세상에서 살지만, 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자.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영광의 하나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견디어 살  
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 요한복음 21장 18-22절

Tag: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락 락하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락 락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광성교회에서 유년부 교사로 3년간 봉사함.

명희기독교백화점에서 6년간 신간서적 정리하면서 알바함.

(DM발송, 컴퓨터로 고객관리, 토요일에는 주보인쇄)

신학교4학년 때 동서울교회로 부임함.

-아동부 교육전도사, 중고등부 교육전도사, 금요일 구역예배 인도.

-사택생활, 주보관리, 전임전도사 역할을 함.

-후에는 청년부까지 맡고, 교사대학.

-5시 새벽기도회, 7시 1부 예배, 9시 아동부 설교, 11시 2부예배, 2시 중고등부 설교, 4시 교사대학, 저녁 7시 저녁예배 설교까지 할 때도 있었음. (담임목사님은 7시 11시 예배 설교)

-5년간 봉사. 성경학교, 수련회, 토요일은 중고등부 성경공부. 토요일 청년부 성경공부.

+교회 물품 구입, +학교생활, +명희기독교백화점 알바

-향이 태어남. 출생신고 1개월 놓침.

-졸업후 남광교회로 전임, 3년 섬김. 개척구역, 노인대학, 목사안수

-서울 문성교회 수석부목. 아래 전임 전도사 3명, 교육전도사 2명, 장로12명.

-교사대학, 전교인 총동원주일, 등.

-1999년 선린교회 설립. 5년동안 어린이 사역 주력. 5년동안 영성사역 주력, 5년동안 송내 예배당, 5년동안 카페사역.